

## 〈書 評〉

### 韓萬榮著 〈佛教音樂研究〉

李 惠 求

(서울대 명예교수)

梵唄의 音樂面의 研究發表가 稀少한데 이번 韓萬榮教授의 [佛教音樂研究]가 出刊케 된 것은 이 方面 研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限에서는, 拙文 “新羅의 梵唄”(1956)에서 처음으로 同音集이 音樂學界에 紹介되었고, 하와이大學의 李秉元教授의 學位論文 An Analytical Study of Sacred Buddhist Chant of Korea (1974)와 同教授의 論文 Structural Formulae of Melodies in Two Sacred Buddhist Chant Styles of Korea (Korean Studies, 1977)이 있을 뿐이다.

이 [佛教音樂研究]는 著者가 序文에서 밝힌 것 같이, 自己가 直接 梵唄를 배우고 또 그것을 錄音하고 (既往의 錄音도 兼用하고) 그 錄音을 採譜하고 分析研究한 論文들을 모아 單行本으로 만든 것이다. 그 中 (1) “佛教音樂 概說”은 [張師勛·韓萬榮共著 國樂概論](1975)에서 著者가 執筆한 것이고 (2) “훗소리의 聲과 形式”은 著者가 알린것같이 [佛敎學報] 第5輯(1967)에 發表되었던 것이고, (3) “梵唄 짓소리와 훗소리의 比較研究”는 [李惠求博士頌壽紀念音樂學論叢](1969)에, 그리고 (4) “허널품에 關하여”는 [韓國音樂研究] 第一輯(1971)에, (5) “同音集의 復元”은 [韓國音樂研究] 第5輯(1975)에, (6) “和請과 告紀念佛”은 [張師勛博士回甲紀念 東洋音樂論叢](1977)에, 그리고 “樂譜 훗소리 常住勸供齋” 35曲과 “樂譜 짓소리” 13曲은 [民俗樂體系定立資料集 第4輯梵唄](1980)에 실렸던 것이다. 이렇게 著者가 13년에 걸쳐 이곳 저곳에 發表한 論文이 單行本으로 出刊되어 佛教音樂에 關한 論文과 樂譜를 便利하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그 6篇의 論文과 採譜를 冊에 실려있는 順序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佛教音樂概說”

이 글은 概說이란 말이 가르치듯이, 佛教音樂의 入門書로, 그 첫머리에 齋와 梵唄의 種類를 說明한 것은 入門書에 適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常住勸供의 儀式順은 記述되었지만(1面 參照) 靈山齋의 儀式은 複雜하니까 省略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機會있으면 侍齋, 齋對靈, 灌浴, 掛佛移運, 靈山作法, 食堂作法, 各拜齋 같은 式順의 大綱만이라도 紹介

되었으면 좋겠다.

## 2. “훓소리의 聲과 形式”

훓소리의 〈聲〉即 旋律形態와 形式(終止形을 包含)이 喝香, 合掌偈, 開啓의 採譜에 基하여 說明되어 그것이 分明하여진다. 다만 記述이 너무 疎略한 느낌이다. 例를 들면,

(1) 「德用」 제20~25소절

第一句의 「奉獻」과 같다. (27面)을 「奉獻」과 같되 奉獻의 旋律을 4度 아래로 내린 것이 다라고 樂譜를 參酌하여 좀 더 正確하게 表現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水舍」과 「合掌以爲花」의 關係도 좀 더 仔細한 說明을 要한다. (p.29)

## 3. “梵唄 짓소리와 훓소리의 比較研究”

이 論文은 짓소리와 훓소로 두가지로 모두 불리우는 特賜加持와 頭匣의 樂譜를 比較하여 짓소리가 훓소리와 다른點을 찾아내려고 하였고, 짓소리에 性格을 規定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짓소리는 “길다.. “規模가 크다”. “壯嚴하다”라는 表現만으로는 不足하고, 音樂自體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그 다른 點은 主로 “자출인다”와 “짓는 소리”에 있다고 主張한다. 그런데 그 “자출인다”와 “짓는 소리”를 “a<sub>1</sub>음型”, “c<sub>1</sub>와 같은 旋律”이라고 說明하는 대신, 좀 더 말에 依한 그 음型的 記述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勿論 樂譜를 보면 그 음型이 分明하다고 對答할지 모르나, 그 樂譜에서 強調되는 部分(音의 持續이나 音程이나)이 말로 正確히 指摘되었으면 더욱 分明하여 질 것이다.

## 4. “허덜품에 關하여”

이 論文은 錄音 採譜된 單頂禮에 나타난 허덜품(歌詞없는 소리를 첨부한 것)의 두가지 即 曲의 序頭와 中間에 나온 두가지 허덜품에 基하여 板本 同音集에 나오는 허덜품의 種類 및 그 機能에 對하여 살펴 본 것이다. 同音集에 허덜품이 모두 12曲에 나오는데, 그 中에서 허덜품의 名稱이 머리에 붙지 않고 同音集에 다만 許(허덜품)라고 쓰여있는 것들의 種類에 關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 허덜품들의 分類는 허덜품이라고만 쓰여 있는 것들의 先行旋律의 비슷한 旋律形態에 基準하였다. 即 허덜품에 先行하는 旋律形態가 同一하면, 그 에 後續하는 허덜품도 同一하다는데 着眼한 것이다. 이 着眼은 非常하다고 생각한다.

그 結果 10曲의 허덜품은 普禮, 單頂禮, 頂頂禮, 三禮請, 一切恭敬, 別禮請의 “普禮허덜품”과 志盤至心, 靈山至心, 四部請, 五師禮의 “無記名의 허덜품” 이렇게 두가지로 區分될 수 있다. 지금도 實際 불리우는 짓소리의 單頂禮의 허덜품에 基하여, 同音集의 허덜품을

整理한 것은 佛敎音樂에 關한 古文獻 解讀에의 貢獻이라 하겠다.

## 5. “同音集의 復元”

板本同音集의 53曲中 13曲은 現在도 불리우지만, 나머지 40曲을 同音集에 基하여 復元하려는 野心的인 試圖의 論文이다.

結局 現在 불리우는 引聲과 同一曲이기 때문에 牧丹讚과 靈山學仙의 2曲이 復元될 수 있고, 特賜加持와 同一하기 때문에 一眞之淸淨, 成于淨土, 特仲供養, 俯賜證明의 4曲이 復元될 수 있고, 三南獻에 依하여 그와 同一한 三摩訶가 쉽게 復元될 수 있다. 그러나 大三寶禮와 四方呪는 그것을 構成하는 回向聲, 普禮初聲, 無上尊聲 또는 (愍衆生聲)의 綜合에 依하여만 復元할 수 있다. 그 曲의 復元이 <聲>의 知識에 크게 貢獻한 셈이다.

그러나 部分的으로 復元 可能한 音樂(例, 是諸衆等)은 復元 不可能한 部分을 包含하여, 同音集全體의 完全한 “復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나머지 30曲은 (53曲中) 如前히 불릴 수가 없다.

板本 同音集에 실린, 지금은 불리지 않는 40曲을 復元시키려는 野心的인 試圖에 道진하며 著者는 10曲을 復元시키는데 成功한 셈이다.

## 6. “和請과 告祠念佛”

混同되고 있는 和請, 回心曲, 告祠念佛을 各各 區別 整理하여 그 性格을 規定하려는 論文이다. 和請과 告祠念佛은 別個의 音樂이고, 回心曲(恩重經)은 告祠念佛의 一部分이라는 結論이다. 10餘가지나 되는 和請과 다섯가지를 包含한 告祠念佛(平調念佛, 告祠念佛, 뒷念佛, 오조염불, 반백이)의 그 複雜한 關係의 規定은 어려운 일에 屬하고, 모처럼 揭載한 두가지 和請과 告祠念佛을 構成하는 5曲의 貴重한 樂譜로 “西道소리旋法” “창부타령調” “東部民謠旋法”을 例示했으면 그 音樂의 理解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著者는 正誤表에서 “창부타령調”를 DEGAB의 5음계로서 “창부타령調”라고, “창부타령調”를 “5음계”(平調旋法)로 追加 說明하였으나, 平調念佛이 5음계로서 창부타령調라는 表現은 單純히 平調念佛도 창부타령같이 5음계라는 表現과는 그 意味 또는 그 範圍에서 다르기때문에, 그 特記된 창부타령調(또는 그 旋律形)은 樂譜에서 例示되어야 좀 더 理解될 것이다.

## 7. 樂 譜

끝에 달린 “훗소리 35曲과 깃소리 13曲의 樂譜”는 著者가 苦心하여 採譜한 것으로, 지금까지 얻어 볼 수 없었던 貴重한 資料이다. 이 훗소리 35曲中의 囑香(186面), 合掌偈(193面

開啓(196面), 特賜加持(248面)의 樂譜는 32面, 34面, 36面, 55面の 喝香, 合掌偈, 開啓, 特賜加持의 採譜와 各各 달라서 이들 4曲의 比較研究에 더욱 좋은 資料라 하겠다.

깃소리의 採譜는 홑소리의 採譜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려운 採譜를 끝까지 나 한 것은 多幸한 일이다. 앞으로 機會가 있으면 그 五線譜 採譜에 同音集에 있는 註를 달으면 同音集解讀에 參考가 될줄로 안다. 例를 들면 引磬의 “南無”가 擧靈山の “南無同” 그리고 引磬의 “大聖”이 擧靈山の “大聖同”이란 註를 引磬 採譜에 記入하면, 引磬과 擧靈山の 異同의 確認과 同音集과 現行 梵唄의 異同 考察에 便益을 줄 것 같다.

앞으로 著者가 이 樂譜들을 掲載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貴重한 資料의 分析記述을 追加하여 梵唄研究에 貢獻하기를 期待한다.

佛敎音樂에 關한 새로운 研究와 貴重한 樂譜를 收錄한 이 單行本은 佛敎音樂研究人士에게는 不可缺의 文獻이라 할 수 있다.